

위기 속에서
밝게 빛나는
기회를 찾다



어려움 앞에서도
더 나은 내일의

가능성을 찾는
교정의 이야기



Re: Light

위기를 기회로

교정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도 어둠을 밝힐 기회를 찾습니다. 월간 <교정> 2월호에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C O N T E N T S

Re:member

- 04 **역사와 오늘**
제주교도소
- 12 **생각의 점점**
기회를 만들어 변화를 이끄는
제주교도소
- 14 **응원의 선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제주교도소 의료과
- 18 **물고 답하다**
위기에 강한 리더십, 성실함과 책임감으로부터
제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송영훈 & 교사 조지훈
- 22 **교정의 가치**
32년간 꾸준히 선사한 '씹는 행복'
제주교도소 교정위원 김양근 원장
- 24 **취미의 공유**
나무에서 발견한 몰입의 기쁨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정호철 & 교감 박연봉
- 28 **전문가에게 묻다**
'나'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맞춤 재테크 설명서
대구구치소 교사 광명재
- 32 **나도 패션왕**
잠시 나를 돌아보며 여유를 찾다
정읍교도소 교사 안상현
- 36 **교정 안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듬어 주는 교정
- 38 **교정의 일기**
누름돌 · 디딤돌 · 걸림돌
소망교도소 팀장 최기훈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Re:mind

- 40 **새로운 만남**
위기 청소년들에게 '인생 제2막'을 선물하다
배우 최불암
- 44 **여행 속 휴식**
캠핑&차박 여행
추위마저 달콤한 '겨울 캠핑' 어때요?
- 48 **문화가 중계**
모순과 대립이 만들어내는 긴장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연 예술
- 50 **맛의 탐방**
한식의 모든 것이 담긴 코리안 패스트푸드
국밥
- 52 **교정 리포트**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 ②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66 **독자 마당**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2월호 Vol. 549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유영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2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교정의 가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가진 제주교도소



“ 더 나은 희망의 교정을 실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

“ 제주교도소는 교정공무원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며, 수용자에게는
내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1980년대 국기 게양식 모습



신뢰받는 교정을 만들다

“ 기본에 충실하며 원칙을 지키는
교정행정을 구현합니다. ”



1980년대 시무식 모습



1980년대 직원교양퀴즈대회 모습



“ 제주교도소는 엄정한 범죄처리를
유지하고 교정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배려를 실천해 이상적인
교정행정을 이룹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1980년대 수용자 특별순화교육
수료식 모습



“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



1980년대 직원 침실 모습



교정교화의 책무를 다하다

“ 수용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시대 변화에
발맞춘 직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동차 정비 및 도장 등 다양한
교육으로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1980년대 수용자 체육대회 모습

법질서와 인권의 양립을 이루다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교정행정을 추구합니다.”



1980년대 수용자 전화 사용 모습



“제주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권 향상과 보호에 집중합니다. 수용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처우를 받게끔 의료전문기가 상주하며, 필요시 인근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 변화를 이끄는

제주교도소



위기가 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따라온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답답하고 위축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순간은
온다. 기분 좋은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금,
제주교도소를 변화시킬 기회는 무엇일까.

[]은(는) ————— 변화의 기회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간호주사 김인이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무탈하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거 같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치지
않고 합심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요!



사랑하는 가족

교사 김정수

가족과 떨어져 제주도에서 근무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길 예정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상의 즐거움

교사 양병수

취미로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올해 목표는 돌돔
50cm 이상입니다. 다른 물고기만 많이 잡고 아직
돌돔은 구경도 못 해 아쉽지만, 잡는다면 주변에
자랑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환경

교감 김승원

여름이 되면 근무지가 바뀔 예정이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전까지 동료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공부와 경험

간호서기 김중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아요. 더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경제 관련
공부도 시작해 볼 생각이구요.



좋은 습관 만들기

공중보건의 정재훈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건강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들려고요. 건강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요.



미래를 위한 준비

공중보건의 김정우

내년에는 공중보건의가 끝나는데, 그때
까지 세부적인 것들을 더 배워 의료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실수 없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제주교도소의 '건강 패스'

제주교도소 의료과



어제와 다른 없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 제주교도소의 '건강 패스'를 자처하며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별일 없는 하루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부서가 있다. 박재홍 과장과 직원 10명이 뚝뚝 뚝뚝 제주교도소 의료과가 그 주인공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저희의 업무가 수용자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용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

제주교도소에 건강을 더하다

건강은 교정교화의 첫 번째 덕목이다. 교정공무원과 수용자가 모두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야 교정교화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출소 후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한 밑바탕이 충실하게 다져질 수 있다. 3년 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자칫 교도소 내에 감염병이 확산되더라도 모든 교정교화 활동이 순식간에 멈춘다. 제주교도소 의료과는 수용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편 방역 활동 전반을 두루 책임짐으로써 건강과 관련된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박재홍 의료과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친절함 미소로 의료과 소개에 나섰다.

“제주교도소 의료과는 내과 전문의인 저를 비롯해 의과와 치과 공중보건,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총 11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수용자 진료와 투약 관리, 건강진단, 법정 전염병 환자 관리, 의약품 관리, 의료시설 이송 진료, 화상 진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 교도소 방역,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백신 접종 관리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매사에 임하고 있죠.”

교도소는 시설 특성상 감염병이 유입되면 사방으로 번지기 쉽다. 때문에 진료 시 수용자들과 밀접 접촉하는 의료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평상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흡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 진료 시 마스크는 물론 페이스 실드와 위생장갑도 반드시 착용한다. 특히 신규 수용자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기관 최대 규모인 총 15개의 컨테이너 거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열정적 전문성

제주교도소 의료과는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채로운 노력을 펼친다. 내과 전문의인 의료과장과 공중보건의의 진료는 물론, 필요할 때마다 안과·피부과·치과·정신과·산부인과 등 8개 진료 과목의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함으로써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매일 오후 의료과 직원들이 한데 모여 환자 상황과 투약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특히 체질이나 질환을 갖고 있는 수용자·노약자·중증 환자의 밀착 관리를 통해 의료사고 및 질환에 의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쓴다.

“발 빠른 조치를 통해 수용자를 살린 경험도 여럿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여름 수용자 건강 측정 시 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빈맥 증상을 보이는 수용자를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 부정맥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을 갖고 있어 객혈 증상을 보인 수용자도 발견 즉시 응급실로 이송 후 중환자실에 입원시킴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살렸죠. 이처럼 저희의 업무가 수용자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용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교도소 의료과는 코로나19 대응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1월 교정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이다. 교정공무원들의 경우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를 제외한 90% 이상이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수용자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추진, 현재(1월 기준) 69.5%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교정기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감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올라선 만큼, 제주교도소 의료과는 앞으로의 수용자 부스터샷 접종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적 적은 11명의 직원만으로도 제주교도소의 건강과 방역을 성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과 특유의 끈끈한 팀워크가 있다. 제주도 출신이 많아 교도소 밖에서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연결돼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실수하면 교도소가 위협해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해지며 팀워크의 농도가 더욱 진해졌다는 것이 의료과 직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진료 시 수용자와 밀접 접촉하면서도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 하기에, 외부에서의 작은 모임조차 가지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 만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용자와 질환의 정보를 속속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커피 머신이 있는 보안과 2층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데요. 아무래도 의료과 사무실과 거리가 있어서 오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수용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직원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려면 의료과 사무실에 커피 머신을 마련해야겠더군요. 그런데 마침 ‘옹원의 선물’ 코너를 통해 커피 머신

MINI INTERVIEW

모두의 건강을 위해 손을 맞잡읍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법’이라고 하지요? 지금처럼 서로 도우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는다면, 제주교도소는 ‘청정 건강 교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읍시다!”

박재홍 의료과장



위기에 강한 리더십, 성실함과 책임감으로부터

제주교도소 보안과
교감 송영훈 & 교사 조지훈

임용 8년 차에 찾아온 새로운 고민

교정공무원 생활 8년 차에 접어드는 조지훈 교사는 요즘 고민이 많다. 조직의 허리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서 전화위복을 불러오는 리더십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고심 끝에 그는 평소 존경해 온 송영훈 교감을 찾아 나섰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송영훈 교감 — 조지훈 교사, 반가워요. 조 교사가 온다고 하기에 이렇게 커피를 타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지훈 교사 — 불쑥 티타임을 요청드렸는데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감님 말씀대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교정공무원 생활이 어느새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 교정공무원들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리더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0년 넘게 성공적으로 교정공무원 생활을 해 오셨고 지금은 위탁작업장과 운영지원작업장을 빈틈없이 이끌고 계신 교감님께 리더십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뵈게 됐습니다.

송영훈 교감 — 어느새 조 교사가 교정기관의 허리 역할을 맡아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네요. 리더십, 참 어려운 문제죠. 저도 그맘때 같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 교사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조지훈 교사 —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배든 후배든 누구나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감님이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교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서 교감님을 존경합니다.(웃음)

송영훈 교감 — 그렇게 말해 주시니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정말 고마워요! 교정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어떤 일이든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점을 알아주니 선배로서 이보다 더 뿌듯할 수 있을까 싶어요.(웃음)





교감님의 생생한 일화를
들으니 앞으로 어떻게
수용자를 교정교화해야
할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inclusivity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포용의 리더십

송영훈 교감 — 제가 듣기로는 조 교사가 아주 책임감 있게 일한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보급된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을 제주교도소의 모든 직원이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것도 조 교사 덕분이었죠?

조지훈 교사 — 당시 총무과 전산 담당으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에 자랑거리는 되지 못하지만, 그때 나름대로 큰 어려움과 마주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한 전산관리과에 문의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사용 매뉴얼을 받아 직원들에게 배포했는데요. 사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피드백 받아서 해결해 드렸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현장에 직접 가서 코칭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배움에 나서 주신 덕분에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됐지만, 당시 담당자로서 큰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영훈 교감 — 만약 조 교사에게 투철한 책임감이 없었다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테고, 그만큼 혼란스러운 기간도 길어졌겠죠. 이런 측면에서 조 교사는 좋은 리더가 될 기본자세를 충실하게 갖췄다고 생각해요.

조지훈 교사 — 교감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용기가 나네요! 교감님도 지금껏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역경을 헤쳐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용자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진정한
교정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송영훈 교감 — 조 교사가 이제 막 보안과로 왔으니, 먼저 수용자를 대하는 입장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수용자를 교정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만 몰입해 수용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교정교화에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교정공무원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용자가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진정한 교정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실함과 책임감이 좋은 리더의 지름길

조지훈 교사 — 수용자들을 교정교화하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교감 — 제가 관리하는 운영지원작업장에 수용자 이발을 맡은 무기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살이 적은 수용자와 말다툼을 했는데, 분에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했죠. 결국 욕을 들은 젊은 수용자가 신고해서 조사하게 됐는데, 무기수에게 징벌을 부과하면 경비처우급이 S3로 하향조정 되서 하나 있는 딸에게 전화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딸 때문에 삶의 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딸과 연락할 수 없으면 앞으로의 교정교화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한 뒤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젊은 수용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도록 권유했고, 당사자들이 화해하면서 조사·수용되지 않고 징벌을 받지 않게 됐죠. 그 무기수는 지금도 딸과 연락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정공무원은 법과 규율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교정교화를 내다보고 사안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법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폭넓게 모든 일을 바라본다면, 수용자 교정교화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조지훈 교사 — 교감님의 생생한 일화를 들으니 앞으로 어떻게 수용자를 교정교화해야 할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송영훈 교감 —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선배가 됐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후배들이 그 선배를 존경할까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면 후배들이 잘 따르는 선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한 성실함은 조 교사가 말한 책임감과 결이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조 교사에게 좋은 리더의 자질이 보인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조지훈 교사 — 오늘 교감님이 해 주신 말씀, 교정공무원 생활의 피와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교감님 말씀대로 책임감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선배, 수용자 교정교화를 최우선에 두는 교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교정행정



32년간 꾸준히 선사한 '씹는 행복'

제주교도소 교정위원 김양근 (김양근치과의원 원장)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치아 건강은 오래 전부터 오복(五福 인생의 다섯 가지 복)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중요하지만, 수용자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공중보건의 시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수용자들의 상황을 지켜봤기에, 김양근 교정위원은 매주 한 번씩 제주교도소를 찾는다. 무려 32년째 실천해 온 일종의 '봉사 습관'이다.

공중보건의 시절부터 이어진 끈끈한 인연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아픔을 겪는다. 치통은 그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축에 속한다. 통증의 정도도 심한 데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몸과 마음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사회에서는 곧바로 치과에 갈 수 있으니 한결 낫다. 바깥에서처럼 맞춤형 진료를 받기 쉽지 않은 수용자들은 치아 관리에 상당히 애를 먹는다. 김양근 교정위원이 제주교도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1990년에는 상황이 더욱 열악했다.

“제가 공중보건의로 왔을 때만 해도 교정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자들의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요. 당시 진료를 보면서 ‘이들에게도 치과 의사가 필요하구나’하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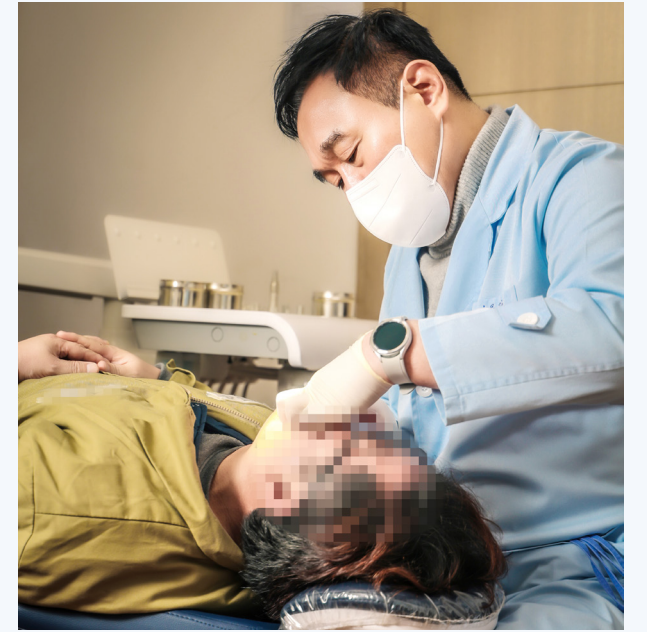
제주교도소에서 1년간 근무한 김양근 교정위원은 이듬해 애월보건지소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제주교도소에는 후임 공중보건의가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공중보건의가 부족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비록 자리를 옮겼지만, 김양근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공중보건의로서 임수를 수행한 1993년 4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교도소를 찾아가 수용자들의 치아를 돌봤다.

“사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온 게 아니었기에 수용자에 대한 선입견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진료하다 보니 ‘교도소에 있더라도 똑같이 진료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라는 판단이 서더군요. 이러한 생각으로 1년 동안 수용자들을 치료했으니, 토요일마다 제주교도소에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었죠. 아마 다른 공중보건의였더라도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김양근 교정위원의 진료 봉사는 공중보건의를 마무리 지은 뒤에도 줄곧 이어졌다. 이후 사정이 좋아져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지만, 매주 한번씩 찾아와 1년 차 치과 의사가 하기 어려운 치료를 도맡았다. 발걸음이 이어지자 제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도 그를 동반자로 받아들였다. 32년째 내리 이어지고 있는 끈끈한 인연이다.

세심한 인솔로 교정교화에 힘을 보태다

김양근 교정위원은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제주교도소를 찾는다. 그의 곁에는 17년째 교도소 진료를 함께하고 있는 든든한 간호사가 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간혹 방문하지 못하지만, 수용자들을 돌본 후 교도소를 나설 때 느끼는 보람과 후련함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30년을 넘게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제주교도소 진료가 일종의 습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바쁜 일정 때문에 진료를 오지 못하면 뭔가 찝찝하고 허전해요. 교도소 진료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일주일을 무사히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매주 수요일마다 으레 하는 일하기에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김양근 교정위원의 꼼꼼한 진료는 그 자체로 전화위복의 기회나 다름없다. 치통이 생기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귀하게 느껴지는 법. 이때 등장하는 김양근 교정위원은 감감한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덕분에 치통에서 벗어난 수용자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밑바탕으로 작용한다.

김양근 교정위원의 헌신은 뜻하지 않은 수상으로 이어졌다. 오랫동안 제주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제30회 교정대상 봉사부문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후에도 10년을 더 봉사하고 있으니, 그의 독심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오래도록 진료 봉사를 해 왔지만, 제주교도소에 올 때마다 ‘이제 그만 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료 봉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교도소 진료 여건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푸념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니, 꾸준히 상황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저의 제주교도소행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저의 진료가 수용자 교정교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나무에서 발견한 몰입의 기쁨

안동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정호철 & 교감 박연봉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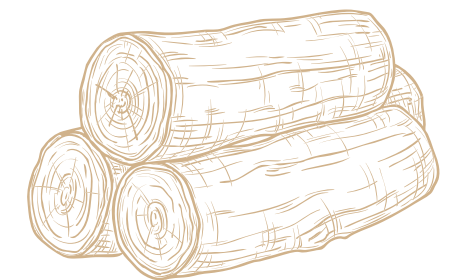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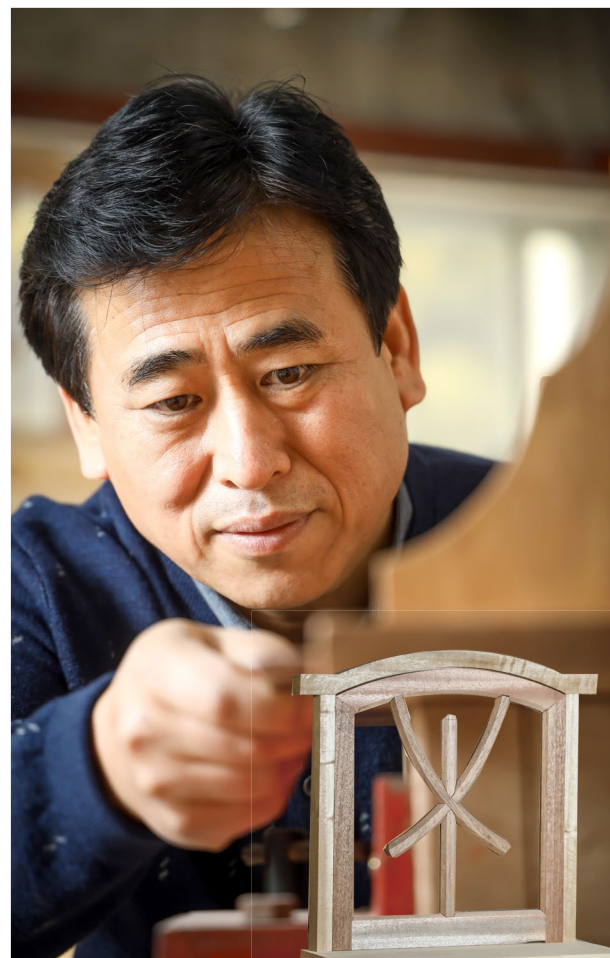
하루의 끝에서 나무와 마주한다. 나무의 향을 맡으며 자란다. 반복, 타당기를 반복한다. 작업에 집중할수록 세상의 근심은 멀어지고, 한창의 기쁨은 짙어진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목공 작업으로 실현되는 그 순간, 회열과 감동이 남아 있던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씻어낸다.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와 박연봉 교감이 목공에 몰입하는 이유다.

뛰어난 실력으로 완성한 목공의 울타리

최근 몇 년 사이 안동교도소 수용자들이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2014년부터 안동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고 있는 정호철 직업훈련교사 덕분이다. 1991년 제31회 국제기능올림픽 실내장식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찍이 고도의 목공 기술을 인정받은 정호철 직업훈련교사는 이후 대기업 건설기술원과 공업고등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동시에 제자들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수상을 이끌며 지도교사로서의 역량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런 그가 안동교도소 식구가 된 데에는 젊은 시절 기능경기대회에 함께 출전했던 수용자들과의 추억이 큰 역할을 했다. “제가 선수로 뛰던 당시에도 전국 각지의 수용자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막상 함께 대회를 치르다 보니 기술적으로 배울 점이 있더군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목공 기술을 익혀서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용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닿아 교향에 있는 안동교도소에 오게 됐습니다.”

정호철 직업훈련교사는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목공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었다. 안동교도소 목공동호회 ‘울타리’를 조직해 틈틈이 교정공무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 과거 경비교도대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에 목공작업실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이어 가던 정호철 직업훈련교사는 교정공무원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뜻 있는 동호회원들을 훈련시킨 뒤 꾸준히 지역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정공무원과 수용자가 함께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 진풍경도 종종 연출됐다고. 그 과정 속에서 박연봉 교감과도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다.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힐링하다

박연봉 교감은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다. 부서진 가구와 집기 수리는 그가 도맡았을 정도였다. 그 기질은 교정공무원이 된 후에도 줄곧 이어졌다. 수용자들이 목공 훈련을 받은 뒤 남은 자투리 나무들을 모아 조각배, 거북선 등을 만들었다. 제작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독학으로 해결했다. 그럼에도 목공 기술 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그는 2020년 7월 안동교도소에 부임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맞닥뜨렸다. 정호철 직업훈련교사가 만든 목공동호회 '울타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직업훈련과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호철 직업훈련교사님의 명성을 듣게 됐고, 목공동호회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목공을 배우고 싶었던 저에게 더없이 좋은 여건이었죠. 곧바로 울타리에 가입한 뒤 열심히 목공을 배웠습니다. 일과 후 야간과

주말을 활용해 열심히 배우다 보니 작년 처음으로 경상북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도 출전하게 됐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치른 첫 번째 도전이었기에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출전 그 자체만으로도 목공 활동의 커다란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박연봉 교감은 목공의 매력으로 '남다른 몰입력'을 꼽았다. 자르기, 깎기, 다듬기, 끼워 맞추기 등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쉽지 않은 활동이지만, 나무 향을 맡으며 눈앞의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 속 문제들의 해결책도 종종 떠오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부터 나무와 만들기를 좋아했으니, 박연봉 교감에게 목공작업실은 치유의 공간이나 다름없다. 그가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는 배경이다.

목공 기술로 조각하는 향기로운 미래

박연봉 교감의 속마음을 들던 정호철 직업훈련교사가 활짝 웃으며 "오 히려 내가 고맙다"고 말한다. 20여 명에 이르는 동호회원들이 목공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물론 대회에 출전해 수상까지 하고 있으니, 목공 장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정복을 입은 교정공무원들과 사복을 입은 직원들은 서로 잘 모르는 상태로 지낼 수도 있는데요. 목공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중심 삼아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으니 무척 기쁩니다. 제가 시간을 쪼개서 교정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이유죠. 그러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업무상 도움도 주고받으니 수용자 교육훈련과 교정교화에도 한결 내실을 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호철 직업훈련교사도 동호회원들에게 이런저런 배움을 얻는다. 최근에는 7년째 국공을 쓰며 전임자인 경북북부제3교도소 내에 활터를 만들기도 했던 박연봉 교감에게 활쏘기를 배우고 있는데, 의외로 적성에 잘 맞아 열심히 활을 쏘며 스트레스를 푼다. 다채로운 교류와 소통 속에서 직장 동료 간의 우애와 사제로서의 정도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최근 한 동호회원이 저에게 오셔서 '나는 이제 노후 걱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 배우며 목공이라는 든든한 기술을 얻었으니, 은퇴 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저의 작은 노력이 함께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사한 것 같아 무척 기분 좋았습니다. 박연봉 교감님도 오래도록 목공과 함께해 주실 거죠?(웃음)" 박연봉 교감이 유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실제로 두 사람은 목공과 함께하는 내일을 그리고 있다. 정호철 직업훈련교사는 목공 기술을 활용해 집 수리 및 가구 수리 봉사활동을 다니려 한다. 박연봉 교감도 꾸준한 목공 활동과 함께 틈틈이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봉사 활동을 도울 생각이다. 수백 년 된 고목처럼 이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목공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까. 그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취미의 공유> 코너 참여 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 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Tip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와 박연봉 교감이 전하는 목공 입문 TIP

정호철 직업훈련교사

"요즘 목공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력 수준이 천차만별이라서 자칫하면 목공에 대한 흥미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목공에 입문하기에 앞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서 좋은 선생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연봉 교감

"목공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배우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면 오래도록 목공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만들기를 좋아하고 가구나 집기를 직접 수리하다 보니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거창한 계기가 아니라도 '나는 왜 목공을 배우려고 하나'를 고민하고 입문하면 한결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우용표

코칭 컴퍼니 대표

곽명재

대구구치소 교사

‘나’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맞춤 재테크 설명서

대구구치소 교사 곽명재 & 코칭 컴퍼니 우용표 대표



꾸준하고 안정적인 접근이 중요

남들 다 하는 재테크 방식은 이제 그만. 재테크 방식이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되면서 내게 꼭 맞는 재테크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리스크는 줄이되 내가 가진 역량과 환경에 맞춰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코칭 타임을 담았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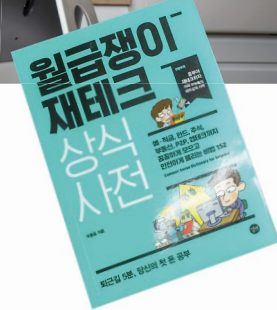
재테크 열풍이 거세다. 최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투자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투자 열풍에 탑승하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봉착하게 된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 외 새로운 투자 형태가 생겨나면서 기존 재테크의 지형도가 바뀌었기 때문.

방대한 양의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재테크에 익숙하지 않다면 더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구구치소 곽명재 교사 또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터, 오늘의 상담을 신청했다. “주변 동료들이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재테크를 시작하고자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도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걸맞은 재테크 방식은 무엇이며, 최근 흐름에 따라 재테크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오늘 상담에는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저자이자 코칭 컴퍼니 우용표 대표가 나섰다. 평소 다양한 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테크 상담과 재무 설계를 해온 그는 맞춤형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투자를 시작할 때 일확천금을 염두에 두면 실패 확률이 커집니다. 단번에 자신의 예산 범위를 뛰어넘는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접근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더더욱 정당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죠.”





이것이 궁금하다!

Q&A



곽명재 요즘 주식과 펀드로 재테크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용표 전통적인 재테크 방법은 크게 주식, 펀드와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SNS 채널이나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재테크 방식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취미생활과 관심 분야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미술품과 음악저작권에 투자하거나 한정판 스니커즈나 레고 등 희소성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돈이나 재화가 아니라도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 재능을 공유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식을 공유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책 출판,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우용표 반대로 교사님께 질문합니다. 누군가에게 30분 동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곽명재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평소 관심이 많아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우용표 그렇다면 수용자의 심리 변화에 대한 경험을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요? 교정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니까 상부의 허가를 얻은 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먼저 블로그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연습 삼아 짧게 짧게 글을 써보세요. 이것들이 모이면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책 출간이나 강연의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곽명재 제가 가진 경험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단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도 궁금한데요.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자산 매입 축소)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용표 네, 맞습니다. 테이퍼링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의 저금리 기조가 바뀌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높아지고, 금리의 영향으로 당분간 주식과



MINI INTERVIEW

곽명재 교사

재테크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결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경험이나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재테크를 알게 됐어요. 오늘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실행해 볼 참입니다!



MINI INTERVIEW

우용표 대표

특수 직종인 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교사님이 지닌 노하우와 경험, 지식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다시 내리가는 시기가 찾아오니까요.

곽명재 요즘은 중국 투자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시장 규모가 큰 중국도 하나의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펀드 외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용표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지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파트너와 이슈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곽명재 재테크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기간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액 재테크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우용표 일확천금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를 빔대어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진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테마주보다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100만 원 정도를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니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가격이 높다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하나의 투자 대상을 여러 사람이 소수점 단위로 분할 거래할 수 있으니 소액 투자에도 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트러커 재킷 & 청바지

하늘색 하프 터틀 니트와 블랙 프린트 티셔츠를 겹쳐 입어 따뜻하면서 젊은 느낌이다. 여기에 연한 갈색 스웨이드 트러커 재킷과 청바지로 활동적이면서 근사한 데이트룩을 완성했다. 신발은 독일군 스티커즈 스타일로 색깔을 맞춰 자유로운 느낌을 실려줬다.

잠시 나를 돌아보며 여유를 찾다

정음교도소 교사 안상현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편한 옷을 찾다 보니 한 번쯤은 색다른 스타일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고 하는

안상현 교사. 막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던 찰나,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평범함을 벗어나

특별한 모습을 찾은 그의 하루를 소개한다.

글 이원복 사진 이정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스타일 변신이 변화의 시작이 되길

정음교도소 안상현 교사에게는 꽤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패션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나를 '동안'이라는 말을 듣지만, 패션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나마 나이 들수록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에 색깔 정도만 신경 쓰는 편이었다. 이런 그에게 스타일링 변신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이었다.

"제가 저에게 붙인 별명이 있는데, '오구남'이에요. (웃음) 옷을 5분 안에 구매하는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대형마트에서 옷을 많이 구매하고요. 옷가게에 가도 직원이 추천해 주는 옷으로 많이 고르죠. 그 정도로 패션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모를 젊고 세련되게 바꾸고 싶었는데 때마침 '나도 패션왕' 코너에 참여 제안을 받았죠."

옷도 옷이지만, 지금 헤어스타일은 28년 전부터 길이만 달라졌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심지어 박사님 머리 같다고 해서 '안 박사'라는 별명도 있었다며 웃어 보인다. 트렌디한 패션과 거리가 멀었음에도 스타일 변신에 큰 용기를 낸 이유는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이다. "벌써 제 나이가 계란 한 판 하고도 반(45세)이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와 결혼을 포기했으나, 용맹스럽고 영리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자신감을 얻고 싶었어요. 변화를 시작으로 올해는 연애를 시작하고 꼭 결혼도 하고자 도전했습니다."



“
변화를 시작으로
올해는 연애를
시작하고 꼭 결혼도
하고자 도전했습니다.”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상을 받다

처음 입어볼 의상은 밝은 브라운 레더 재킷에 짙은 색 청바지와 스니커즈로 멋을 낸 캐주얼 스타일이다. 처음 입어보는 레더 재킷이 낯설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특유의 입담을 자랑하며 만족하는 모습이였다.

안상현 교사는 현재 정읍교도소 보안과 소속으로 분류센터 입자 수용동 및 신입 미결수용자 수용동에서 근무한다. 주 업무는 분류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각 교도소에서 입은 수용자들과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2주간 격리되는 신입 미결수용자 관리, 그리고 그들의 고충 해결이다. 그가 교정공무원이 된 데는 현재 광주지방 교정청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의준 교위의 영향이 크다.

“대학교에서 만난 후배지만, 교정공무원으로서는 선배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조언도 많이 듣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도 나누는 둘도 없는 사이죠.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교정공무원이 된 이후 안상현 교사는 꽤 바쁘게 살아왔다.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두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큰 결실을 보기도 했다. 2021년도 '제11기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이다.

안상현 교사는 24년간 헌혈봉사를 203회 실시하고 이후 헌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헌혈증을 기부해 왔다. 또한 2015년부터는 법무부 청소년범죄 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하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의 자립과 재활을 도왔다. 그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이유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교정공무원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주위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에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봉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개인적 불운이 겹쳐 위축돼 있었는데,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
하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 복무 당시 불발탄을 처리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과 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만 전역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한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이야기가 주는 교훈

마지막으로 세미 정장을 갖춰 입은 안상현 교사는 이렇게 입어본 것이 오랜만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30대 중반까지는 정장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에 이런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이후로는 편한 옷만 입었는데, 세미 정장을 입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데요, 앞으로는 패션 잡지나 패션 관련 TV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발 스타일 좀 바꾸고 패션 공부도 하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안상현 교사.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애정을 드러내며 교정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은 외부에 있어야지 내부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과거 로마에 대적할 상대는 없었지만, 결국 내부의 적에 의해 분열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멸망에 이르잖아요. 각자 위치와 맡은 일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교정공무원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앞서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헤링본 무늬 슈트 & 니트
헤링본 무늬의 짙은 회색 슈트와 깔끔한 검정 라운드 니트로 날씬해 보이게 연출한 오피스룩 스타일. 검정 마틴 로퍼로 캐주얼함을 더하고, 시계와 안경도 의상에 맞게 선택했다. 전체적으로 절제된 색깔로 실루엣을 슬림하게 연출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듬어 주는 교정

글 황○○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어른들 사이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순한 편이라 '순둥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아이였습니다. 이런 제가 교도소에 들어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된 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토토'라는 도박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됐고, 저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돈을 탕진하고 동네 선배에게도 빚을 지게 되고, 후배에게도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인생이 점점 후회의 늪으로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차 뒤에 타 있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에 저는 ‘무슨 일이야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차 뒤에 타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주기에 ‘아차’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저는 경찰에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절도, 사기 등 악질적인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빚이 쌓일 대로 쌓인 저는 전국을 도망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던 중 부모님과 통화가 닿았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아… 수배됐다. 그만 자수해서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 귀하게 키운 내 아들… 아들아 난 널 믿는다”라는 한마디에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수해 조사를 받고 긴급 이송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교도소 안에서 부모님과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며 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의 간경화는 더욱 심해졌고 어머니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첫 심리 재판 검사님이 초범인 점, 사회 초년생인 점을 감안해 구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나아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마음과 저의 앞날을 위한 ‘미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쉬운 직업은 없다는 것, 부모님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며, 합의를 보러 다니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출소하면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교도소는 흐트러진 제 마음을 다듬어 주는 곳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금 병 치료와 함께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점점 오셔서 “출소해서 다시 잘하면 되고, 늦지 않았다” 하시며, 아들이 굶진 않을까란 생각에 접견물이라 영치금을 항상 넣어주고 가십니다.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손찌검하지 않고 귀한 외동아들로 키워주신 저의 부모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나가서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에 모시고 가서 밥 한 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어렵게 버신 돈 제가 꼭 변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누름돌 · 디딤돌 · 걸림돌

글 소망교도소 팀장 최기훈



● 디딤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하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아들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모자를 벗었다. 참 무거운 모자였다. 여태껏 모자 쓰는 인생을 살았다. 초등학교 때만 모자를 쓰지 않았지, 중·고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입대해 3년 가까이 군모를 썼다. 그리고 전역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교도관이라는 제복 공무원이 되고 보니 지금까지 모자와 결별하지 못한 꼴이다. 거의 50년 동안 모자를 쓴 셈이다. 교도관이 돼서 썼던 80년대 모자가 제일 무거웠다. 금속제 커다란 모표까지 달았으니 오죽할까. 순회 점검 때는 그 모표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았다.

격일 근무를 하던 그 시절, 새벽 1시에 일어나 잠이 덜 깬 채 교대 근무를 하러 들어갈 때면 철문에 머리를 부딪치기 일쑤였다. 모표에 이마가 찢겨 피가 나기도 했다. 모자를 벗고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때부터 컸다. 시간이 지나 현재는 모자를 벗고 근무한다. 40년 소원을 이뤘으니 감개무량하다.

현장 근무 직원들의 애로를 귀담아듣고, 정책 결단을 내린 당국의 넉넉한 리더십에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있다. 모자의 중압감은 모자의 무게뿐만이 아니었다. 내게는 '누름' 당하는 압박이 모자를 쓰는 내내 느껴졌던 것이다. 그 누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누름돌! 분명 모자는 누름돌이었다. 내 어릴 적 윗집 할아버지는 왕골을 길게 찢어 돗자리를 만들었다. 거기에 조약돌 추를 달아 돌의 무게로 한 땀 한 땀 조여들게 했다. 튼실한 돗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어머니는 장독대에 매끈하면서도 묵직한 몇 개의 돌을 챙겨 놓았다. 장독에 무장아찌나 묵은지를 담글 때 간이 제대로 배도록 돌을 얹는 것이다. 또 두부를 할 때도 두부가 잘 굳도록 누름돌이 필요했다.

이제 또 다른 디딤돌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 소(所) 정문에서 보안 청사로 연결된 한 20여 미터 남짓 짧은 길에는 한 걸음마다 모양 좋은 검은색 돌을 박아 놓았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었다. 살짝 얼기라도 하면 자칫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곤 했다. 급기야 나이 든 한 직원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병원에 갈 정도로 작지 않은 부상이었다. 이 돌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디딤돌을 치울 수밖에. 모양보다 안전, 껌데기보다 알맹이를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디딤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하다. 이를테면 아버지는 아들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아버지를 딛고 아들을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다.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나를 딛고 꿈을 이루라고 지혜와 열정을 다 쏟는다. 큰 애정의 디딤돌이다. 이런 디딤돌은 오로지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다.

모르지기 나는 교도관의 사명이 이 디딤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군가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나를 딛고 건너가길 바라는 뜻이 디딤돌에 담겨있다. 그런 애뜻하고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나를 밟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시오. 그 길이 꽃길이 되고 부디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듯 누름돌과 디딤돌은 참 의미 있는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수필가 최원현 선생은 '누름돌'이라는 명수필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니 옛 어른들은 누름돌 하나씩은 품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을 누르고, 희생과 사랑으로 그 아픈 시절을 견디어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내게 그런 누름돌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쳐 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주체롭게 욕심내다 깨어진 감정들을 지그시 눌러주는 그런 돌 하나 품고 싶습니다."

정녕 나도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거친 마음 씹씹이를 다독여 주는 따뜻한 때깔 고운 마음의 누름돌을 하나 품고 살아야겠다. 이 돌이 귀찮다고 팽개친다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걸림돌은 상처를 만들기 십상이다. 디딤돌이 제 노릇을 못하고 본분을 잊으면 분명 걸림돌이다. 단언컨대 드러나지 않는 뿌리 같은 디딤돌이려야 한다.



최불암 배우

제로캠프 이사장

ZEROCAMP

위기 청소년들에게 '인생 제2막'을 선물하다

명실상부 '국민 배우'이자 '국민 아버지'인 최불암은 최근 소년 수용자들과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삶을 향한 '인생 제2막'을 선물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매진해 온 연극이 그 매개체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아이들을 위해 펼친 연극의 날개

어느덧 80대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배우이자 연예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최불암에게는 또 하나의 직함이 있다. 바로 '제로캠프 이사장'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로캠프는 소년 수용자들과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며 그들 스스로 건전한 꿈과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연극과 아이들 교정교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쭙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극은 확실히 아이들의 심성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년 수용자를 포함한 위기 청소년들의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자신을 아낀 줄 모르고,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니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연극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수많은 다른 삶을 심어 줍니다. 주인공과 조연이 되어보고 정의로운 인물과 역경을 이겨 낸 배역을 거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여러 갈래의 생각과 마주합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름의 기준과 목표를 세웁니다. 꿈이 바로 서니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로 거듭납니다."

수십 년 배우 생활을 거치며 연극의 힘을 누구보다 크게 실감한 그는 2013년 김천 소년교도소의 문을 두드렸다. 청소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그를 소년 수용자들에게로 이끈 것이다. 교정교화에 뜻이 있는 예술가들과 힘을 합쳐 소년 수용자들에게 연극을 가르친 끝에 2013년 12월 대강당에서 뮤지컬 <날개>를 공연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매년 한 편씩 꾸준히 소년 수용자들과 함께 연극을 완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쉽게도 연극을 올리지 못했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화될 올해부터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게 그의 이야기다. 백발 성성한 대배우의 눈망울에는 소년 수용자들과 함께할 2022년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다.



주

소년 수용자들과 함께 울고 웃은 22년

● 최불암과 소년 수용자들의 첫 만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15일, 천안소년교도소 특설무대에서 뮤지컬 <춤추는 별들> 공연이 있었다. 그는 그날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교도소에 막 도착했을 때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들을 위해 연극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차 그에게 연락한 것. 고마움과 뿌듯함을 안고 소년 수용자 500명과 함께 무대에 선 그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이 밀려왔다. 500명의 진심 어린 노랫소리에 관객과 출연진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 무대의 중심에서 연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을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2012년 4월 소년원 수형 경험이 있는 한 독지가가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꾸려진 제로캠프와 연결되면서 남몰래 그리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전공이자 아이들의 교정교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연극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행복하게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어 오고 있죠. (웃음)” 제로캠프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 소년 출소자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 공간을 서울구치소 민원실 한편에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희망커피 1호점이다. 최불암은 출소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방황하기 쉬운 이들을 바리스타로 채용하는 희망커피 1호점이 또 하나의 무대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일하며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자립의 밑바탕을 제힘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희망커피를 찾는 민원인이 많지 않은데, 그 빈자리를 교정공무원들이 채워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소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많이 신경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제2의 인생을 밝히기 위해 애쓰시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각자의 잘못을
반성해야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최불암 시리즈’에 녹아 있는 뜨거운 사랑

● 최불암은 제로캠프 이사장 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장을 37년째 맡는 등 오랜 기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힘써 왔다. <수사반장>에 출연하던 1972년, 그의 가슴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다. 보다 실감 나는 드라마를 위해 출연진과 연출진은 실제 사건 현장 견학을 종종 다녔는데, 어느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동사한 아이의 시신과 마주한 것이다. “뽕뽕 언 그 아이는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만큼 추웠던 거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어린아이에게 누구 하나 담요 한 조각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고, 비정한 세상을 만든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유행한 최불암 시리즈도 알고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웃음을 위한 그의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됐다. 아이들이 세간에 떠도는 최불암 시리

즈를 나누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는 출판사에 초상권, 성명권을 모두 내줬다. ‘나로 인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의 진심은 널리 퍼져 결국 전 국민을 웃게 만들었으며, 이는 그의 이미지에 친근감을 더하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가 최불암을 바라보며 느끼는 특유의 친근함과 푸근함은 그의 선한 마음이 배경에 깔려 있었기에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최불암은 아이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물질만능주의를 꼽는다. 어른들이 돈을 부르짖으며 각자 살길을 찾는 데만 몰두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 문제의 해법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말한다. “먼저 어른들이 각자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야 우리나라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실천한다면, 소년 수용자들과 위기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삶과 환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저도 지금껏 그래 왔듯,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연극으로 아이들을 일깨우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캠핑&차박 여행



추위마저 달콤한 '겨울 캠핑' 어때요?

겨울은 캠핑 비수기다. 하지만 캠핑 '덕후'들에게 겨울은 '캠핑 즐기기에 딱 좋은 때'다. 행락객이 거의 없어 캠핑의 낭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상상해 보시라. 인파 대신 산과 바다, 구름과 숲, 별과 노을만 가득한 캠핑의 시간을. 그 속에서 즐기는 '불멍'은 기대보다 낭만적이고 생각보다 더 매혹적이다. 여기에 까만 밤, 텐트 위로 사락사락 눈까지 내린다면 금상첨화일 터. 텐트 밖 설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시간도 소소하지만 참 진하다. 생애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겨울 캠핑, 이번 겨울엔 꼭 한 번 즐겨보자.

글: 사진 이시목 여행 작가 사진 제공 변산반도국립공원 사무소



'차 안'이 리버뷰 5성급 호텔 경북 상주 상주보 다목적광장

아무래도 준비가 필요한 여행은 피로하다. 챙겨야 할 장비들이 산더미라면 출발 전부터 지쳐버리기 일쑤. 좀 더 가볍게 훌쩍 떠나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 차박이 답이다. 도킹텐트를 치지 않고 차 안에서 숙식하는 '스텔스차박'이라면 준비 시간은 더 짧아져, 떠나고 싶은 순간 바로 떠날 수 있다. 사실 프로 차박러에게 차박지는 '어디든'이다. 발길 닿는 곳 어디든 차박지일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초보 차박러라면 안전성과 뷰, 편의성이 모두 좋아야 한다. 경북 상주에 있는 '상주보 다목적광장'은 이런 면에서 장점이 많은 곳이다. 특히 낙동강 푸른 물가에 자리해 뷰가 좋다. 우스갯소리로 '리버뷰 5성급호텔'이라고 불릴 정도다. 또 도킹텐트 설치와 스텔스차박 모두가 가능한 것도 매력. 일교차가 큰 날엔 차 안에서 뽀얗게 들은 물안개와도 조우할 수 있다. 주변으로 볼거리가 밀집된 것도 추천 이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경천섬이 바로 곁이다. 이중 경천섬은 학전망대와 수상탐방로가 세트로 묶인 '메머드급 여행지'. 산책하기에도 야경을 즐기기도 좋아 찾는 이 많다. 정식 캠핑장이 아니므로 더 각별한 뒷정리가 필요하다.

상주자전거박물관도 '짹콕'



'상주자전거박물관=자전거의 모든 것' 국내에서 이 등식은 성립한다. 세계 최초 자전거부터 최신 자전거까지 다 있고, 나무로 만든 자전거와 5층짜리 자전거까지 있다. 지난해 말 새로 단장해 재개관했다. 핵심 관람 공간은 2층에 있는 상설체험관. 이 중에서도 페달을 굴려 반딧불이를 빛나게 하는 체험과 외발자전거 타기 체험은 필수다.



Auto camping

별, 운해, 강... 이 풍경이 다네 것!

강원 정선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이른바 캠핑장계의 벼락스타다. 아니, 개장(2013년)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라 지금껏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다. 인기 비결은 마운틴뷰, 리버뷰 다 갖춘 입지 조건. 백운산과 동강이 한눈에 담기는 높이(해발 630m)와 거리에 있어 여느 캠핑장보다 전망 좋고 풍경 멋지다. 더욱이 이곳은 때때로 운해까지 하얗게 피어올라 장관을 이루는 곳. 발아래로 구름바다가 깔리는 날엔 운해 위에 텐트를 세운 듯 풍경 황홀하다. 주위에 불빛이 많지 않아 밤하늘 풍경이 유난한 것도 매력. 하늘 맑은 겨울날엔 시린 코끝 위로 별만 무수히 쏟아져 내린다. 그래서 별칭도 '자연경관 5성급 캠핑장'이고, 하늘 아래 첫 캠핑장이다. 캠핑 덕후들 사이에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캠핑 명소'로도 꼽힌다. 편의시설도 풍광 못잖게 좋다. 67명의 야영테크를 중심으로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카페, 전망대 등을 완벽하게 갖췄다. 온수와 전기도 사용할 수 있으며, 테크 크기도 기본 4m×5.6~6m로 거실형 텐트가 올라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 인기 사이트는 캠핑장의 모든 전망을 품을 수 있는 1~2번. 텐트 문만 열면 동강과 백운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이다. 다만 캠핑장 전 구역에서 모닥불은 전면 금지돼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휴쇼핑 패키지 상품(현장 도착순 추천, 1~10번 사이트 대상), 온라인 예약(자리 지정 가능), 현장 매표(현장 도착순 자리 배정) 등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정선 왔다면? 곤드레밥!



정선에서 곤드레밥은 '진리'다. 시내를 비롯한 정선 곳곳에 곤드레밥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많다. 특히 동강전망캠핑장에서 가장 가까운 곤드레밥 맛집은 예미리에 있는 곳으로 질기지 않은 부드러운 곤드레와 물을 엮어 지은 밥에, 김가루를 듬뿍 얹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곤드레밥을 주문하면 함께 나오는 곤드레 누룽지도 별미. 매콤달콤한 명태조림도 인기 있다.

칼칼한 백합탕 맛보세요



청정 갯벌을 품은 부안은 예부터 소문난 백합 산지다. 한창 때는 국내 백합의 70~80%가 부안에서 낚을 정도. 캠핑 전이나 캠핑 후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 당긴다면, 주저 말고 백합탕을 맛보자. '조개의 여왕'으로 불리는 백합을 청양고추와 함께 칼칼하게 끓여 내 언 몸이 순식간에 녹는다.



텐트를 노크하네요, 파도소리가 전복 부안 고사포야영장

겨울 바다를 보면서 캠핑하고 싶다면 고사포야영장을 짚해보자. 국립공원에서 운영해 자연경관 수려하고, 비용 또한 합리적이다. 게다가 아늑한 숲속이 바람까지 막아줘 풍경도 캠핑 환경도 좋다. 소문으로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야영장 중 두 번째로 좋은 곳이라고. 무엇보다 해변에서 야영장이 가까워 겨울 바다의 파도 소리가 텐트를 철썩철썩 노크해 준다. 화로대 사용이 가능한 점도 인기 요인이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 가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즐기는 '불멍'은 겨울 캠핑의 꽃. 특히 불 앞에 웅기종기 모여앉아 올려다보는 하늘 풍경이 참 좋다. 하늘로 쏘처럼 피어오른 소나무들 사이에서 별들이 반짝대 더욱 운치 있다.

현재 운영 영지는 총 69동이다. 이중 나9에서 나13번까지가 '오션 뷰 1열' 사이트로 인기다. 겨울철엔 바람이 거세 초보 캠퍼에겐 머물기 쉽지 않은 자리지만, 경험 많은 캠퍼들에겐 풍경의 장점만 오롯이 취할 수 있는 자리다. 국립공원 야영장답게 이곳엔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한 무장애 영지도 2동(가1, 나1) 있다. 마사토 영지인 일반 사이트와 달리 나무데크 영지이고, 차도 바로 곁에 주차할 수 있다. 샤워실, 개수대, 매점 등을 갖췄으며, 겨울엔 코인샤워장만 운영한다. 이용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모순과 대립이 만들어내는 긴장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연 예술

대립과 모순은 여러 예술에서 다뤄지는 주제이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다. 팽팽한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번갈아가며 휘몰아치는 과정은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특히 현장감 넘치는 공연 예술에서의 대립은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는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글 이원복

신의 존재에 관한 치열한 논쟁 연극 <라스트 세션>



© (주)파크컴퍼니

#오영수 #신규 #신의 존재 #종교와 인간 #삶의 의미

연극 <라스트 세션>은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 S. 루이스의 논쟁을 담은 공연이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프로이트와 유신론자 루이스의 대화는 관객이 흥미롭게 느낄만한 주제를 던지며 90분 넘는 시간 동안 눈과 귀를 집중하게 만든다.

이야기는 프루이트가 루이스를 자신의 서재로 초대하면서 시작한다. 실제로 이 둘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인물이다.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과 배우들 명연기가 정신분석학과 문학이라는 각기 다른 분야의 두 사람이 종교와 인간, 고통과 삶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주제로 나누는 대화를 흥미롭게 표현했다.

<라스트 세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역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오영수와 범접할 수 없는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 신규가 프로이트 역으로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대감을 모았다. 루이스 역은 배우 이상윤과 전박찬이 맡았다.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내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 오디컴퍼니 주식회사

#이중인격 #선과 악 #인격 2면 #지금 이 순간 #대립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이중인격을 소재로 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로 재탄생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두 자아의 대립이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하며 긴장감을 선사한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상반된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주인공과 각각의 인격을 사랑하는 엠마와 루시가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리는 동시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오가는 섬세하고 연기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이다.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캐릭터에서 드러나는 배우의 매력이 어떤 작품보다 잘 드러나며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흥미를 더한다.

국내 최초 스릴러 로맨스 뮤지컬로 지금까지 총 150만 관객을 열광시키고 가슴 설레며 기다리게 만드는 작품으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매년 국내 최고의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가슴 벅찬 감동과 뜨거운 전율을 선사한다.

삶과 죽음, 대립을 넘어 순환으로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서울>



© 클립서비스 주식회사

#라이온 킹 #브로드웨이 #내한 공연 #생명의 순환 #아프리카 초원

누구나 아는 디즈니의 명작 <라이온 킹>이 뮤지컬로 돌아왔다. 뮤지컬 <라이온 킹>은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된 대작이다.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인터내셔널 투어 팀이 올해 서울을 찾았으며 오직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연 예술을 보여준다. 4년 만에 내한한 뮤지컬 <라이온 킹>을 놓쳐서는 안 될 이유는 원작의 서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아프리카 초원의 모습을 온전히 재현한 무대 디자인과 천체적인 연출, 야생 동물을 연기한 배우들의 탄력적인 움직임 때문이다. 왕 무과사와 그의 동생 스카가 대립하는 장면은 강렬한 마스크 뒤 배우들의 표정 연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Circle of Life(생명의 순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많은 동물이 모여드는 오프닝은 한번 보면 절대 그 감동이 잊히지 않을 정도로 장관이다. 대지에서 태어난 생명이 삶과 죽음 사이 무수한 순환을 거쳐 살아간다는 의미의 가사는 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식의 모든 것이 담긴 코리안 패스트푸드

국밥



요즘처럼 추운 계절에는 국밥 한 그릇이 안성맞춤이다. 따끈한 국물에도 푸짐한 꾸미, 든든한 밥알까지 후루룩, 한 끼 식사가 재빨리 이뤄진다.

글. 사진 이우석 농고먹기연구소장

한국인의 힘, 국밥

국밥은 글자 그대로 국과 밥이 합쳐진 음식이다. 한식의 기본인 밥, 국 그리고 찬을 똑배기 하나에 모두 담았다. 빨리 차릴 수 있고 먹는 이는 숟가락 하나만 들면 됐다. 세계에 선 거의 유일하게 숟가락을 주요한 식기로 사용하는 우리 식문화도 국밥 발달의 배경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뜨거운 음식 열식(熱食)에다 국물 음식 습식(濕食)이다.

대한민국 외식 산업은 국밥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밥은 저자(시장)나 주막에서 나왔다. 말뜻은 비슷하지만, 탕반(湯飯)과는 다르다. 소고기와 나물, 전유어(부침개)를 넣고 끓인 탕반은 소위 돈깨나 있는 계층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아무나 먹을 수 없었다. 현재의 다동·무교동에 있었다는 '무교탕반'을 비롯해 '개성탕반', '진주탕반' 등 권력과 금력이 있는 곳에 이름난 탕반집이 있었다. 개성과 평양 등 북쪽엔 이와 비슷한 온반(溫飯)이 있었다.

서민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다

화폐 통용이 일반화된 18세기 후반 전국 유명 장터에는 장사치와 손님을 위해 저렴한 국밥들이 속속 등장한다. 그중 이름난 것이 '정성 설렁탕'과 '담양 창평장 순댓국', 이후 종로통에 등장한 해장국 등이다.

장터 한편에 천막을 치고 솥단지를 내걸었다. 화력이라곤 장작불 하나뿐이니 미리 밥을 해놓고 국을 끓여 다시 토렴했다. 토렴은 국밥의 기본 조리법이다. 뜨거운 국물로 식은 밥을 데울 수 있고 국물이 밥알에 스미니 맛도 더 좋아지는 부수 효과도 있다. 주로 장국밥, 신깃국, 추어탕, 설렁탕 집에서 볼 수 있다.

서울에서는 설렁탕이 국밥의 주도권을 잡았다. 1902년 창업(대한제국 한성부 등록),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포(老舖)인 종로 '이문설농탕'은 종로 조선 건달 김두한 패거리와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등이 단골이었다고 한다.

1930년대 경성에는 무려 100곳이 넘는 설렁탕집이 생겨났다. 특히 나무꾼, 지계꾼과 공무원, 점포 종업원 등 일자리가 몰려있던 종로와 청계천 주변에 설렁탕집이 즐비했다.

시골 장터에도 맛있는 국밥집이 입소문을 탔다. 담양 창평장과 천안 아우내(병천)장터, 용인 백암장 순댓국이 맛 좋다고 소문이 나, 오일장을 순회하던 상인들의 인기를 얻었다. 해장국을 전문으로 파는 집도 생겨났다. 1937년 종로에

'청진옥'이 생겼다. 새벽에 장작을 팔러 나온 나무꾼들이 선지와 내장을 넣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허기를 때우고 허기를 달랬다. 장작불에 끓여낸 국물은 이들에게 당일 소모할 수 있는 하루치 에너지를 줬다. 물론 맛도 좋았으니 잘 되는 집만 됐다.

한 그릇에 지역 특색이 고스란히

왜 하필 국밥일까. 얼마 안되는 식재료로 가능한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국이다. 재료에 물을 넣고 끓이면 양이 많아진다. 밥을 말면 흡수 잘 넘어가니 든든한 끼니를 빠르게 제공했다.

한식에서 거의 모든 식재료는 국밥이 될 수 있다. 고기나 생선, 어패류는 물론, 배추와 시래기, 우거지, 콩나물 등 푸성귀로도 국을 끓일 수 있다. 미역이나 김, 매생이 등 해조류도 가능하고 김치와 젓갈, 황태, 만두, 순대 등 한 번 손이 간 가공식품도 다시 국밥 재료가 된다. 이러니 지역별 생산물과 문화, 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각각 특색 있는 국밥이 독자적으로 생겨났다. 설렁탕은 서울, 소고기국밥은 경북, 순대국밥은 호남, 다슬기국밥은 충북, 돼지고국밥은 부산 경남, 황태국밥은 강원도. 이런 식으로 국밥 지형도가 형성된다.

국밥은 서민 음식이기에 생산량이 많거나 저렴한 허드레 부위를 쓰는 경우도 잦다. 우시장이 있는 창녕과 대구 현풍의 소구레(수구레)국밥, 굴이 많이 나는 통영은 굴국밥과 장어 대가리로 육수를 내는 시락국밥, 국내 최대 덕장을 보유한 대관령 황태국밥 등이 있다. 매생이 주산지인 전남 장흥에는 매생이국밥이 생겨났다.

대부분의 국밥은 영양가가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많은 국물을 마시게 되는 탓에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금(새우젓)을 조금 적게 넣고 대신 부추 무침이나 깍두기, 김치 등을 곁들이며 간을 맞추는 것이 낫다.

연일 쌀쌀한 날이지만 절절 끓는 국밥 한 뚝배기를 비우고 나면 거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요즘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엔 특히 우리 삶의 연료로서 든든하기만 하다. 연일 쌀쌀한 날이지만 절절 끓는 국밥 한 뚝배기를 비우고 나면 거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요즘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엔 특히 우리 삶의 연료로서 든든하기만 하다.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이복자를 중심으로②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
 - 2. 자료 수집
 - 3. 자료 분석과 기술
 - 4.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타당성 제고 전략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논의



유숙경*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겸임교수 (hm10716@naver.com)

• 접수일(2021. 05. 21.), 심사일(2021. 08. 18.), 수정일(2021. 08. 23.) 게재확정일(2021. 08. 26.)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나타난 구성요소

1) 진입 동기

(2)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 상승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시대를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황금만능주의시대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명예보다는 돈이 있어야만 하고, 그 돈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봤다. 연구참여자2는 마약밀매를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로 의미를 구성했다.

“뚜벅 뚜벅 걸어서 어느 천 년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겠어요. 해운대의 엘리베이터 올라 가다가 다리 부러지지요. 돈은 벌어야 되고 마약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주옥 올라간다. 적금(한숨)… 그런 것 해서 언제 돈을 벌어요.” [연구참여자2]

연구참여자들에게 전통적인 가치이자 규범인 근면과 성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희박해진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근면과 성실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근면과 성실은 이제 쓸모를 다해 폐기돼야 하는 기계와도 같다고 구술했다.

“근면, 성실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래 써 갖고 이제는 고장났어요. 쓰레기 하치장에 갔다. 벌어야 돼요. 약은 놔서 잘 사는 세상이니까(큰 목소리). 나는 남들이 범죄라고 하던 육을 하던 마약이라는 상승 수단을 선택한 것에 불가해요.” [연구참여자5]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마약밀매는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유희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난한 자의 꿈

연구참여자들 중 1, 2, 4, 5는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그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엄감생심(嚴敬生心)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2와 5는 모두가 대학 졸업자인 우리 사회에서 고졸 학력으로 그리고 조그만 분식집 하나 차릴 수 있는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마약은 유일한 신분 탈출 수단이자 생존의 조건이라고 구술했다.

“돈도 백도 없는 놈이, 거기다 가방 끈도 짧고 뭘 하겠어요. 나도 카페 같은 것 하면서 편하게 럭셔리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이 없잖아… 아휴, 아버지는 장애인에다 도박에 빠져서 아버지 구실도 못하고 엄마가 파출부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아버지 도박꾼이고 엄마가 파출부해서 나도 노가다하면서 살라는 법은 없잖아.”

마약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꽃 피울 수 있는 것이니까. 나한테 영웅은 지금은 죽었지만 부산의 피노키오예요. 그 영화 마약 왕에 나온 사람은 아니구요. 진짜 유명한 마약 총책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돈 없이 나하고 똑같았거든요. 피노키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연구참여자1]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 마약이 성행한 원인을 빈부의 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남미의 경우 빈민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프로축구선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약 장사꾼이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3의 구술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학창시절에 이미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모순을 체험하고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약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금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하고 흙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다른데,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벗어나려면 공부를 잘 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 만큼만이라도 살고 싶어서 마약장사한 거예요.” [연구참여자3]

2) 마약공급조직

마약공급조직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압축적인 동시에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는 항구적 상선 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1) 항구적 상선 구축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해 주던 밀매자의 회유와 권유를 받았고, 마약 밀매자의 소개를 받아 소매를 시작했다. 마약 밀매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마약을 구입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확보와 두 번째는 마약을 공급해 주는 상선의 확보다. 상선(上線)이란 마약을 공급하는 조직에서 자신보다 윗선에 있는 밀매자들을 말한다. 상선이 체포되거나 그들과의 연락이 두절 되면 물량을 공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상선을 매우 중요시했다. 소비자는 지천에 널려 있지만 상선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5의 경우 기존의 상선과 관계가 단절될 때를 대비해 또 다른 상

선을 찾았고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한때 기독교 신자였던 연구참여자2는 상선을 광야에 있는 배고픈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추라기 고기와 만사를 제공한 여호와로 의미를 부여했다.

“상선이 잡혀가거나 무슨 일을 당하면 큰 일 나는 거예요. 마약 달라는 사람한테 제때 약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찾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자본이 많아서 많은 양을 비축하지 못해요. 그래도 이쪽 상선 눈치바가면서 적절하게 팔아주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서 상선을 늘려가는 거예요.” [연구참여자2]

마약 수사관들이 경험에 의하면 마약 밀매자를 체포했을 때 그 상선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다. 많은 마약 밀매자들은 상선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문다. 이는 의리가 아니라 자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마약수사관들의 상선을 불면 잘 해주겠다고 그래요. 은근히 빼 줄 수도 있고 형을 좀 싸게 받도록 해 준다는 거겠지요. 그래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선에 대해서 침묵해요. 마약쟁이들한테 의리는 눈곱만치도 없어요. 단지 상선이 날아가면 나중에 교도소 갔다 나와도 또 해야 하는데 물건 줄 사람이 없잖아.” [연구참여자3]

상선이 중요하기에 연구참여자2는 상선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인적사항이나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 자신이 발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1의 구술에 의하면 상선을 발설한다는 것은 곧 조직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현재 마약 수사관들이 상선을 밝히기 위해 과거와 같은 고문 등을 하지 않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유희로 인해 상선을 발설하는 것을 두려워 해 아예 상선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옛날처럼 고문하는 것은 아닌데 형을 좀 싸게 해주겠다는 유희이잖아요. 그 유희에 넘어가 불면 마약장사는 영원히 하지 못해요. 아예 모르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전화번호인데 저나 그 사람들이나 대포 폰 쓰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연구참여자1]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선은 연구참여자들이 마약 밀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기에 영원한 상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불신과 배신구조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마약 밀매 조직은 의리나 인간적인 정을 찾기 어렵고 불신과 배신으로 점철된 구조라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1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상선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았지만 형을 감형을 받기 위해 같은 동료의 정보를 알려줬다고 구술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지니지 않았다고 했다. 왜냐면 마약조직에는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마약은 아예 처음부터 의리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코푼다고 하는데 잡히면 다 불어요. 상선은 안 불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해 먹어야 하나까.” [연구참여자1]

이와 같은 내용은 연구참여자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4에 의하면 인간적인 의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며 의리는 다 떨어진 신발이라고 표현했다.

“의리 그것 지금은 너털너털해져서 떨어진 신발이나 마찬가지로요. 전에 알던 OO이라 사람이 끝까지 안 불었어요. 자기 친구를 그 친구 뭇까지 뒤집어쓰고 학교(교도소)갔는데 의리를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학교에 있을 때 친구가 다 해 먹고 나중에 교도소 정문 나올 때 또 얘기 했어요. 옛날 사건 갖고 또 잡혀 간 거지요. 그것 본 후에는 이것 할 라면 의리부터 제일 먼저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 진거예요.” [연구참여자4]

경험은 연구참여자2의 경험과도 일치하다. 그는 자신과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마약 밀매자를 제거하기 위해 거래선을 탐지했고 경찰을 밀고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나도 약장사하기 전에 내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원래 나쁜 놈이라 그러는 것인지 약장사하다보니까. 최악의 나쁜 놈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OO지역은 내 나와바리거든요. 근데 한 놈이 야금야금 감아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나와바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힘 싸움인데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 뒤에서 상선까지는 못 땀지만 싸그리 넘겨버렸

어요. 그리고 나와바리는 내가 독식한 거지요.” [연구참여자2]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정보는 물론 모든 것들을 최대한 은폐해야만 했다. 대표 폰은 상식이고 거주지도 언제나 자주 옮겼다. 연구참여자2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다. 한 가지의 분류 기준은 마약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자신을 고발할 사람과 고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다.

“대표 폰은 필수품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한군데에서 전화 안 해요.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하니까. 돈이 있어도 전세나 집 같은 것 잘 안사는 게 불법이로 살아야 하잖아요? 또 집에서 살림할 일 없으니까. 대부분 언제나 옮기기 좋은 모텔이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호텔 같은데서 살아요. 가방에다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다 집어 넣고 여차하면 그 것만 가지고 뛰는 거예요.” [연구참여자2]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마약 밀매를 유지를 위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배신의 구조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믿음의 근원 현금

모든 마약거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현금으로 이뤄진다. 신용거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금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만 원권이 발행됐을 때 가장 환영한 계층이 마약 밀매자와 불법 도박자라고 했다. 늘 현금을 확보해야만 했기에 연구참여자4는 재테크는 늘 멀리했다고 구술했다.

“부동산 오르는 것 누가 몰라요? 그게 나중에 자금 출처도 의심받을 수 있고 우리는 땅이나 집에다가 절대 현금을 안 물어 놓아요. 현금이 있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테크 같은 것은 몰라서 못하지만 현금 때문에 못해요.” [연구참여자4]

이와 같이 현금에 연구참여자1에게는 신이었고 연구참여자5는 신용거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에 나와 같이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구요. 교도소 갔다 나오고 할 것을 없고 처음에는 조금 자제하다가 어차피 해야 해요. 나한테 찾아와서 약 좀 달라

고 애걸복걸하는데 그 사람이 약쟁이 중에서는 신용 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도 거절했지요. 원래 이 바닥에서는 그런 것 하면 안돼요.”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믿는 것은 현금이었기에 자신을 현금을 지키는 세파트로 비유하기도 했고, 연구참여자3은 토끼가 여러 개의 굴을 파듯 다양한 장소에 현금 은닉처를 만들었다고 구술했다.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왔죠? 마늘 밭에 수백 억 원 현금을 물어 놓은 것. 근데 도박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는 한곳에 몰빵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미련했던 거예요. 마늘밭에다 다 몰빵하고, 지금 밭이 아니라도 감춰놓을 곳 많거든요. 은행 비밀 금고 그런 것 안 해요.”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들은 마약 밀매를 늘 체포의 위험을 안고 사는 직업이라고 했다. 체포될 때를 대비해서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4의 구술에 의하면 과거에는 체포됐을 때 현금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그때는 너무나 못 살았으니까. 다들 잡히면 현금 주고 빠져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후시나 해서 현금을 갖고 다녀요.” [연구참여자4]

3) 소비시장 확장전략

(1) 주변지인 공략

연구참여자들은 마약 밀매자들로서의 첫 출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부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3은 마약 밀매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의리나 도덕을 포기한 것이기에 주변 친구들은 가장 좋은 소비자였다. 연구참여자1은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아주 좋은 소비자였다.

“원래 날라리나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애들이 마약에는 약해요. 취미로 한두 번 호기심이 아니라 아예 나이트클럽 죽들이, 죽순이들은 놀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개네들은 딱 사인만 주변 금방 넘어와요. 나는 내 친구한테, 제일 먼저 약을 팔았어요.” [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4는 연구참여자2와 유사한 구술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최우선 고객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유흥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자극을 찾는 사람들도 역시 고객이었다. 연구참여자4의 지인 중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소위 말하는 얼리어답터이다. 그는 친구의 호기심을 파고 들어서 약을 팔았다.

“뭘 새로운 것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호갱이예요. 진득하게 일하거나 맨날 그 날이 그 날 같은 사람들은 잘 안 넘어와요. 그 사람들도 마약이 범죄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호기심이 한번 발동하면 처음에는 다 호기심에 하지만.” [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3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약을 팔기가 가장 수월하다고 했다. 어찌보면 자신의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처음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3은 아는 사람 중 비교적 정이 많고 입이 무거운 사람들을 선택했고 이들에게 약을 팔기 시작했다고 구술했다.

“아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약을 해서 인생이 망가졌다. 나한테 약을 판 놈을 고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중독인데 일단 중독이 되면 약을 할라고 불지도 않아요. 우리가 약 팔아 먹으려고 상선을 불지 않는 것과 같아요. 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뭘 의리로 입을 닫아주는 거예요.”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들이 이와 같이 지인들은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신분을 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약을 사줄 수 있는 잠재적 고객에 불과했다. 연구참여자5는 마약 밀매를 시작한 후 제일 먼저 지인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선별작업과 분류작업을 했다. 별 세 개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별 두 개는 가능성이 중간인 사람, 별 하나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 분류했다고 구술했다.

“리스트를 쪽 만든 후에 분석을 해요. 그 사람의 돈이나 재산도 그렇고 직업, 성격, 그리고 쾌락 같은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 다 아니까 쪽 하고 거기다 별을 매깁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 예측이 거의 다 맞아요. 별 3개로 분류한 사람들은 한 60~70%가 다 내 약을 샀으니까.” [연구참여자5]

(2) 단단계식 밀매 구조

연구참여자들의 꿈은 마약계 최고의 상선이었다. 마약계 최고의 상선은 노출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수입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콜롬비아의 마약 왕 에스코바르를 역할 모델로 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소매자들로서는 한계가 있었고 최소한 도매상으로 승격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많은 수의 소매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전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3은 자신이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쓴 값에 마약을 공급해 지독한 중독자로 만들었고, 그를 소매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마약중독이 심화되고 마약 구입 비용이 소진되면 많은 경우 마약 소매상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중독자가 많아져서 돈이 많아서 계속 약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떨어지고 주변에 기댈 때도 없으면 이제야 소매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저는 초기에는 털 먹고 싸게 샀어요. 싸니까 계속 먹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네 사람 정도 소매자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상선이 되고 물건을 대주는 도매상이 된 거이지요.” [연구참여자3]

위와 같은 밀매 조직의 구성은 연구참여자3과 5에게서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3의 구술에 의하면 중독자는 자신의 마약 값을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밀매자로 변신한다고 했다. 연구참여자5 역시 마약 밀매자를 끌어들이는 후 초기에는 소매상에게 많은 수익을 보장했지만, 점차 수익을 줄여 자기의 수입을 극대화했다고 구술했다.

“어떤 사람은 중독자 만들 때 약값을 싸게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받을 것은 다 받고 어쩔 수 없이 약장사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진짜 말이 우습지만 동기 부여가 돼서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들, 약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가요. 일중에 유인책을 쓰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익이 10이다. 그러면 내가 3이나 4먹고 6이나 7을 줘요. 그러다가 점차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6이나 7을 먹고 파는 사람이 3이나 4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한번 위이면 빠져나가질 못해요. 나는 노출을 잘 안 시키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불어버린다고 하면 다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구참여자5]

(3) 중독의 무한 루프에 가두기

마약중독의 구조는 일종의 무한 루프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빠져들어가면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4는 마약을 끊은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유혹해 다시 마약을 하게 하고 그들을 밀매자로 변화시켰다.

“꽤 오랫동안 중독됐는데 병원 갔다 오더니 어찌저찌고 해 끊었대요. 우리는 끊었다고 하면 웃어요. 스스로 찾기도 하지만 또 찾게 만들어요. 뭘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도 유혹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주사기만 봐도 마약주사가 아닌 일반 주사기만 봐도 확 필이 땀긴단 말이에요. 그 만큼 독하니까. 다시 약쟁이 만들고 장사시키는 것이지요.” [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1의 경우 소매자를 양성하기 위해 자신과는 상관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는 불법이지만 다양한 루트를 동원해 마약 복용경험이 있고 각 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목록을 찾아냈다 그 목록 중에서 소매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한편 일반 사용자들을 분류했고 상대 특성별로 접근했다.

“개인정보를 아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이 사람들의 형사처분하는 것 아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래도 다 수가 있어요. 돈만 주면 다 되니까. 육할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신규시장 개척이에요. 한 번 한 사람은 언제 가는 다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약장사할 사람도 고르고 그냥 단 순히 사용할 사람도 골라요.” [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4는 마약 사용자를 유혹함에 있어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신념으로 일관했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들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이 마약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4의 구술에 의하면 마약시장은 신규 소비자의 확장보다는 기존 소비자의 유지와 사용량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마약을 중단한 사람에게 집요하게 접근한다.

“마약은 그러니까 약은 열 사람에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기존의 중독자 한사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열 사람

이 마약을 했다고 해서 다 중독되는 것은 아니예요. 또 새로운 사람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렵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 한번 한 사람, 죽을 때까지 뽑아 먹는 거예요. 유혹도 하고 옛날에 안 걸렸던 거 분다. 위험하고 다 그렇지요. 사채꾼들하고 고리대금, 사채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거지요. 계속 짜면 다나오거든요.” [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들이 마약을 중단한 사람들은 다시 중독의 길로 유인한 데는 기본 두 가지 전략이 동원됐다고 분석된다. 연구참여자3의 경우 약을 끊은 사람에게 중독 당시에 강력한 쾌락을 떠올리게 했다고 구술했다. 참여자의 경험에 의하면 회복하려는 의지나 소망보다 약에 중독됐을 때 경험했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쾌락이 다시 사람들을 중독의 길로 끌고 간다고 보고했다.

“약이라는 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뽕이나 코카인이나 그거 했을 때 쾌락 죽어도 못 잊어요.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몸이 기억해요. 약을 한 여자였는데 그냥 가정주부도 아니고 술집여자도 아니고 중간이예요. 살림하면서 술집 했으니까 독하게 마음 먹었어요. 끊었어요. 그런데 여자이니까. 다른 애 시켜서 옛날에 약할 때 좋았던 얘기 계속하게 해요.”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3은 이렇듯 강력한 쾌락을 상기시키지만, 연구참여자2는 타인의 약점을 잡아 다시 마약을 사용하게 했다. 마약은 공급뿐만 아니라 단순 사용도 처벌이 대상이 된다. 이들이 사법당국에 체포됐을 때 과거의 모든 범죄를 다 캐낼 수는 없다. 따라서 많은 범죄 건수가 묻혀지는 경우가 많다. 연구참여자2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과거의 밝혀지지 않는 건수를 들먹이며 다시 유혹했다. “딱 한 번만!”이라는 말은 마약 밀매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무서운 말이다.

“제일 무서운 것이 딱 한 번이지요. 약도 딱 한 번만 한다고 하다가 영원히 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때도 그래요.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죽어도 다시는 부탁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딱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또 범죄이니까 걸리게 되고 옛날 것 때문에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데예요. 끝판지에 빠진 파리가 꿀이

맛있어서도 못 빠져나오고 또 꿀에 달라붙어서 못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연구참여자2]

4) 사회관계

(1) 평범의 가면 쓰기

연구참여자2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마약 밀매자는 대중매체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 총각’들이라고 했다. 연구참여자4는 주변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구술했다. 지금까지도 이웃들은 그를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역사회 행사 찬조나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섰다. 철저한 자기 은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언제나 내가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하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감추는 거예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착한 사람, 이렇게 해야지요. 저 보세요. 손에도 몸에 문신하나 없어요.” [연구참여자4]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5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수기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연구참여자는 정수기 영업사원으로 가장한 것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고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구술했다.

“정수기 외판원이라고 하니깐. 자기 집에 정수기하나 놓아 달라고 하더라구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왜 사람들 속이려면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데 교수, 선생도 짝잡아요. 근데 외판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만만해 보이거든. 남들한테 만만해 보이니까. 신경을 안 써요.” [연구참여자5]

평범한 삶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나인 투 파 이브(9 to 5)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집에 머물지 않았고 오전에 집을 나섰다. 사우나 도박장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마약 거래가 없는 날은 직장인처럼 오후 6시 또는 7시에 집에 들어가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구술했다. “우리들 생활이 불규칙한 것 같지만 그 것은 아 마추어들이고 진짜 프로는 직장인처럼 똑같이

요. 양복 입고 왜 돈이 많아도 현금이 많아도 외제차를 왜 안사겠어요. 조폭들은 돈이 없어도 통차라도 외제차 큰 것을 끌고 다니지만 개네들은 그걸 통해서 가요를 잡지만 우리는 숨어야 해요. 차도 보통 차, 전철을 타고 다니고.” [연구참여자1]

(2) 거짓봉사

5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연구참여자1, 3, 5는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구술했다. 연구참여자3은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했고 후원금과 찬조금을 아낌없이 냈다. 연구참여자는 이에 대해 자신을 과장하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 마약 밀매자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고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약장사를 한다는 게 나도 생각하면 한심하잖아요. 내가 동네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첫 번째는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가면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도 사람답게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1은 노인시설의 정기후원자로도 활동했다. 매월 1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보냈고, 때로는 목욕봉사나 명절에는 선물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다. 그가 마약 밀매로 체포됐을 당시 주변에서는 경악을 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췄다는 것보다는 나쁜 사람 꼬임에 빠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전에 한번 잡혔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다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 그런 일을 했냐!’이러는 거예요. 내가 프로 약장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꼬임에 넘어가서 실수한 것으로 봐요.” [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4는 자신들이 하는 이웃 봉사나 사회적 활동이 철저한 과장이라고 구술했다. 그리고 선행은 후일 체포됐을 때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했다. 연구참여자는 이를 ‘뽕 먹고 알 먹고’라고 구술했다.

“첫째는 가면 쓰는 거고 크게 크게 효과는 없지만 판사한테 보내는 반성문 같은 것 별 것 없어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 써주는 것. 근데 판사 초짜들은 넘어가요.” [연구참여자4]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차원에서는 평범한 사람을 과장하고 지역사회 봉사, 사회복지관 봉사들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약 밀매 경험이 있는 남성 마약 사용자의 마약 밀매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이해하고자 했다. 마약 밀매 경험이 있는 마약 사용자 5명의 심층 면담 자료를 Caeswell(2013)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입 동기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 상승, 가난한 자의 꿈이었으며, 마약 공급조직은 항구적 상선 구축, 다단계식 밀매 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분석됐다. 또한 사회관계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마약 밀매 경험을 요약해 교정기관 차원의 공급차단과 수요 감소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위험 부담보다는 마약 밀매의 고수익에 유혹돼 마약 밀매를 시작하고, 마약 밀매를 하면서 자신은 사회·경제적으로 계층 상승이 됐다고 자부했다(Messner & Rosenfeld, 2001:90).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마약 사용자에서 밀매자로 전환하면서 고 수익을 얻기 위해 상선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약 공급 조직 속에서 불신과 배신의 경험이 여반사(如飯事)로 현금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다(에두아르도 베르가라, 최이슬기, 2016: 191). 연구참여자들은 소매상에서 중·도매상으로 상승하고 소매상이지만 많은 소비자를 확보했다.

이와 같이 마약 시장에서 성장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공략하는 다단계식 밀매 조직망을 구성하면서 성장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평범하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일관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마약 중독자, 밀매자의 확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논의다. 연구참여자는 낮은 학력과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마약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경

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유엔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완화를 추진하고 있다(신상철, 2020:80).

하지만 제도적 아미노이론(institutional anome theory, IAT)처럼 꿈과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들은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성실과 근면을 무기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보다는 마약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다(황선재, 2015:22; Pessoa et al., 2017:248; Pobutsky, 2020: 87). 마약 중독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퇴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김동엽, 2017:62). 출소자의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꿈꾸는 젊은이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물질·인적 자원의 제공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예산지원과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마약 밀매자와 상선과의 관계이다. 마약 밀매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공급해 줄 상선이 필요하다(Tretyakova, 2020:48-53). 마약 사용자에게 한 걸거 위주의 엄벌 정책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마약 사용자와 마약 밀매자들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데 이곳에서 또 다른 공급루트와 소비자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다(유숙경/이경원/류진선, 2020:144).

그러지만 현재는 교정시설에서 마약 관련 수감자들의 정책은 범죄의 경중이나 유형을 불문하고 한 공간에 수감하는 구조적 시스템이다(조성남 외, 2021:44; Hughes et al., 2020: 35-40). 마약 사범은 교정시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필요하며, 의무참여 프로그램 참여 후 재범률이 감소됐다고 한다(Henggeler, & Marlowe, 2010:2; Hough, 2003:5).

그러므로 마약 사범의 수감 장소인 교정시설을 치료공동체로 만들어 운영을 한다면 재범률을 낮추게 될 것이다. 이는 예비 마약 밀매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급차단 정책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마약 사범을 분리 수감을 통해 공급 루트를 개척과 소비자 확보를 원천적인 차단하는 정책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약 밀매자들의 판매기법과 판매 근절에 대한 논의이다.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마약 밀매자들의 판매 전략을 분석해 마

약 중독자와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마약 밀매자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비인간적인 윤리 의식도 있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영업 방법으로 주변지인들을 공략하는 것은 가장 쉬운 판매 전략이다(da Agr, 2017:1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8).

따라서 마약 사범의 사후관리 대상을 확대해 주변 지인들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적 접근은 법무부와 교정기관이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전문 상담 인력이 연계해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돼야 한다(Riega-Virú & Tataje-Véliz, 2020: 119-134). 중독자들은 자신의 마약 값을 벌기 위해 밀매자로 변신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상선으로부터 마약 밀매 초기에는 수익을 보장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윤을 줄고 다단계식 밀매 조직에 빠져들면서 마약 순환구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da Agr, 2017:13).

하지만 한 사람에서 시작된 마약 밀매가 다단계식 밀매 조직으로 발전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마약 밀매로 적발된 사람들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Johnson et al., 2020: 202).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 수감자들은 방어적 차원이 교정과 교화는 사회 적응력을 낮춰 재범률을 높인다(유숙경, 2020).

그러므로 마약 밀매자를 건전한 직업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직업교육과 직업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을 사회 재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Henggeler & Marlowe, 2010:2).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함께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마약 중독자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 대한 마약 밀매자들의 회유 근절에 대한 논의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약 중독 회복자도 마약 밀매자의 집요한 유혹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마약 중독 회복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환경적 요인이 마약 중독자와 집단문화이며, 집단 속의 마약 밀매자들이다(강선경/양동현/문진영, 2016:110).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마약 회복자를 지지하기보다는 다시 중독자로 만들기 위해 집

요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구술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을 끊고 재활하고자 사는 의지가 있는 개인들에게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마약 밀매자들과의 정신분석적, 정신의학적 이론에 의거한 원인을 분석이 필요하기(Musto, 1996:77) 교정시설 내의 단순 마약 교육이 아닌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교정정책 차원에서는 마약 관련 수감자들을 수감 기간에 엄격한 법을 적용해 재활을 위한 체계적 치료공동체 참여를 의무화한다면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Hough, 2003:5).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에 치료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치료시설의 운영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조성남 외, 2021: 44). 출소와 가석방을 앞둔 수감자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경험하게 한다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Wilson et al., 2006: 470).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나타난 은폐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결과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보통사람들로 자신을 은폐시켰다. 이는 자신의 밀매자로서의 신변 안전과 사법당국의 감시와 검거를 피하는 위한 위장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재적 자기낙인과 자기비하를 사회적 이상화된 이타적 행동 속에 감추고 자하는 염원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1988: 75). 마약 밀매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시선을 내려놓고 범죄자가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치료대상으로 인식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Moore et al., 2013: 539; Kourgiantakis et al., 2016:20). 현재 마약 사범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보호, 치료감호, 수감명령 등의 보완된 형사정책과 함께 치료와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경험 탐색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변화 경험이 다른 마약 밀매자들은 물론 중독자들에게 변화 동기를 찾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마약 정책인 검거 위주의 공급 감소 정책보다는 향후 공급 차단 정책과 수요 감소 정책의 필요와 치료 재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무총리,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1. 26.(수) 13:30, 서울동부구치소

참석자

법무부차관, 교정본부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방문 목적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역
실태 점검 및 현장 직원 격려 등



법무부차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일시-장소

- 1. 29.(토), 1. 30.(일), 2. 5.(토),
2. 7.(월) 서울동부구치소
- 1. 31.(월) 인천구치소

점검 사항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실태 점검 등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방역 상황 점검



일시-장소 1. 31.(월), 2. 3.(목), 2. 4.(금) 서울동부구치소

점검 사항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방안 논의 및 분산 이송 점검 등

교정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일시-장소

- 1. 29.(토), 1. 30.(일), 1. 31.(월),
2. 3.(목), 2. 4.(금), 2. 5.(토)
서울동부구치소
- 1. 31.(월), 2. 1.(화) 인천구치소

점검 사항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실태 및
분산 이송 현장 점검 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1월 19일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 시설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총 16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 인원을 최소화하고 건물 외부 또는 별도 건물에서 위문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 교사 변무관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구치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유태오 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시기에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규 직원들은 공무원 선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우희경 소장은 “공직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축하하고,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제26대 수원구치소장 취임

수원구치소는 1월 3일 제26대 수원구치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서호영 소장은 “화합과 소통을 통

한 조직 역량 강화,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교정행정 혁신, 수용자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방역실태 확인 및 폭행사건 예방을 점검했다. 신경우 청장은 “교정시설은 고위험 집단 시설인 점을 감안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인천구치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신규 직원들은 공무원 선서를 통해 청렴한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제50대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1월 3일 제50대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하영훈 소장은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정행정을 실현하고,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제16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취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24일 제16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남주 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며,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월 10일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동운 소장은 승진 및 전입 직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고, 신규 직원에게는 교도관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것을 강조하며 격려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1월 5일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교감 최현철 등 10명은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진규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남다른 책임감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해 주신 동료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상을 축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남준락 소장은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일환 소장은 “공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축하하며, 성실히 나아가다 보면 훗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교정공무원이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수용자 물품 기증

원주교도소는 1월 19일 박이균 교정위원에게 사과 30박스를 기증받았다. 박진홍 소장은 “추운 겨울

따뜻함을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강릉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직원들이 소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으며, 신규 직원들 또한 스스로 청렴하고 자랑스러운 교도관으로 태어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식 개최

영월교도소는 1월 5일 법무부장관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교감 채봉현 등 13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현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부터 현재까지 직원 모두가 잘 해왔으며,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 표창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올바른 자세로 성실하게 꾸준히 근무할 것”을 강조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월 7일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 및 수용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정진 지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소망교도소는 1월 25일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선제 대응을 위한 이번 교육에서 직원들은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광민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1월 26일 설을 맞이해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홍성교도소 수용자 환소 지원

대구교도소는 1월 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대구교도소 신축 이전 예정 시설에 수용됐던 홍성교도소 수용자 환소를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13일 홍성교도소에서 이송됐던 코로나19 비확진 수용자 197명 중 형기 종료 출소 등을 제외한 188명 전원이 홍성교도소로 환소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지호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1월 26일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2곳과 관내 불우이웃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호서 소장은 “코로나19 시국의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직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았으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홍성진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확진 수용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직원 24명이 참여해 약 40분 동안 진행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창원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오세홍 소장은 이날 임용된 교도소보 양주명 등 2명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신규 조리원 채용식 개최

부산교도소는 1월 3일 신규 조리원 채용식을 개최했다. 신규 조리원으로 채용된 이정재 조리원은 “부산교도소 최초의 남성 조리원으로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 감회가 새롭고, 조리원 선배님들과 마음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철민 소장은 “이번 신규 임용된 직원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정공

무원의 본분을 다하길 바라며, 자기계발과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와 봉사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1월 12일 진주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 등을 점검했다. 유병철 본부장은 보안과 통제실, 격리 수용동 및 정신 수용동 등 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대구구치소는 1월 25일 설을 맞아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SOS 어린이 마을'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달로 실시됐으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생활방역전담반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격리 순서, 보호구 착용, 동선 분리, 이동 경로 및 소독 실시 등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1월 10일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육근우 소장은 이날 임용된 교도시보 진상현 및 승진, 전입 직원 8명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지훈

승진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월 10일 승진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배경석 소장은 승진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신규 직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정 공무원에 임용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승진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1월 10일 승진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동수 소장은 "승진 및 신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선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월 10일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고상길 소장은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며, 교정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교정위원 표창 및 감사패 전수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1월 12일 2021년 교정행정과 교정

교화 등에 기여한 울산구치소 교정위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수식을 개최했다. 신용일 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상, 권희자 교정위원은 교정본부장 감사패, 관창규 교정위원은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2022년 신년 충훈탑 참배 실시

경주교도소는 1월 3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황성공원 충훈탑 참배에 경주시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참석했다. 대표로 참석한 서보균 소장은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새해 첫날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관 대표로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제19대 통영구치소장 취임

통영구치소는 1월 3일 제19대 통영구치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진아 소장은 "코로나 유행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1월 13일 밀양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유병철 본부장은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임시 격리시설, 신입자 격리 수용동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직원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유튜브(www.youtube.com/교도소24시)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jc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1월 10일 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된 전입 및 신규 직원은 "상주교도소에서 근무하게 돼 매우 기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삼 소장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1월 10일 전입 직원에 대한 신고식 및 환대 행사를 개최했다. 정병헌 청장은 "일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일선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직원 11명에 대한 환영 인사 및 격려, 꽃다발 증정 등 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청주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양원동 소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공직자로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을 축하했다.

천안교도소 / 교사 조영웅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류동수 소장은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청렴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교도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승진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10일 승진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강기천 소장은 "승진한 직원들은 한 계급 승진한 만큼 이에 맞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청렴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연말 시상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1월 10일 모범 공무원, 법무부장관 표창 등 2021년 연말 유공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수상자 대표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송근열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충주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장원재 소장은 "여러분들이 교정행정 발전의 미래이며 희망이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연구와 자기개발을 통해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정조원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과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계급장 수여, 꽃다발 증정 등 신규 직원 임용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기능전환을 위한 TF팀 설치

천안개방교도소는 1월 10일 기능전환 TF팀을 설치했다. TF팀은 보안과장을 팀장으로 9명의 인원이 구성됐으며, 국내 최초 여자개방교도소로 기능전환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개시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안정적인 기능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10일 승진·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장승구 지소장은 "어려운 시국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규 직원 교도 진현창 등 7명은 "논산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솔선수범해 논산지소의 앞날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정기관 NEWS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수용자 물품 기증

광주지방교정청은 1월 18일 광주지방교정청 교정 연합회로부터 불우 수용자 지원금을 기증받았다. 지원금은 450만 원은 질병 또는 가족관계 결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용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광주교도소는 1월 25일 설을 맞이해 무연고 형 집행정지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고아원 등 3개소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광주광역시 고려중학교의 불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광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역복지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1월 20일 설을 맞이해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진달네집'과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직원들은 생활지원금 및 물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전달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설맞이 위문활동 실시

순천교도소는 1월 26일 설을 맞이해 1사 1촌 마을

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각 30만 원씩 위문금 총 120만 원을 전달했다. 백금태 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지훈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1월 10일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최국진 소장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복무 기강 확립과 품위 유지, 수용 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규 직원들은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과 법에 근거한 업무 처리로 청렴하고 사고 없는 목포교도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군산교도소는 1월 10일 전입 직원 신고식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꽃다발 수여 등 전입 및 신규 직원을 환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홍순철 소장은 "군산교도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제주교도소 / 교위 이철우 범무부차관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월 21일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교정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교

도소를 방문했다.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중앙통제실, 직업훈련장, 격리 수용시설, 수용동 증축 현장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장흥교도소 / 교도 박상욱 준법상 수여식 개최

장흥교도소는 1월 11일 관내 장흥용산중학교 졸업생 6명을 대상으로 '준법상'을 수여하고 표창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김종근 소장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월 17일 해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 직원 발생과 관련한 대처 사항 등 현황을 청취하고 중앙통제실 및 구내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휴일에 발생한 직원 확진에도 직접 접촉한 직원들을 신속하게 자가 격리하고, 직원과 직접 접촉한 수용자에게 PCR 검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안전 반출 및 파기 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1월 11일 정읍소방서장의 예방(禮訪)을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정읍교도소 및 정읍소방서 간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화재 및 각종 재난 사고 예방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릉교도소 교위 정영수

정영수 교위는 1997년 임용 후 약 24년 동안 재직하면서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총무과 수용 기록 업무 담당으로 수용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해 수용자 권리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자존감 회복 및 자기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교정교화에 힘쓰는 등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위 이태경

이태경 교위는 지난해 12월 11일 보안 4부 수용 3·4관리팀 기동순찰 교위로 근무 중 보호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모포를 덮어쓰고 헛발질을 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수용 관리팀 내 모니터로 발견했다. 즉시 TRS로 보안본부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동시에 보호실 내로 들어가 자살을 시도한 수용자를 저지했다. 이태경 교위의 신속한 발견으로 수용자의 자살을 저지할 수 있었으며, 추가 자살 시도 방지를 위해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전교도소 전문경력관 류지수

류지수 전문경력관은 2019년 및 2021년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용자가 출전해 금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직업훈련 교육으로 수용자가 출소 후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3D프린터 직종으로 직업훈련 공과를 변경했으며, 직업훈련 수용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직업훈련 성과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교도소 교감 강문수

강문수 교감은 1989년 임용 후 약 32년간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보안과 외부 의료시설 진료팀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보호 장비의 사용 및 적절한 계호 배치를 통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처우 대상 수용자의 증상 및 특이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해 적절한 의료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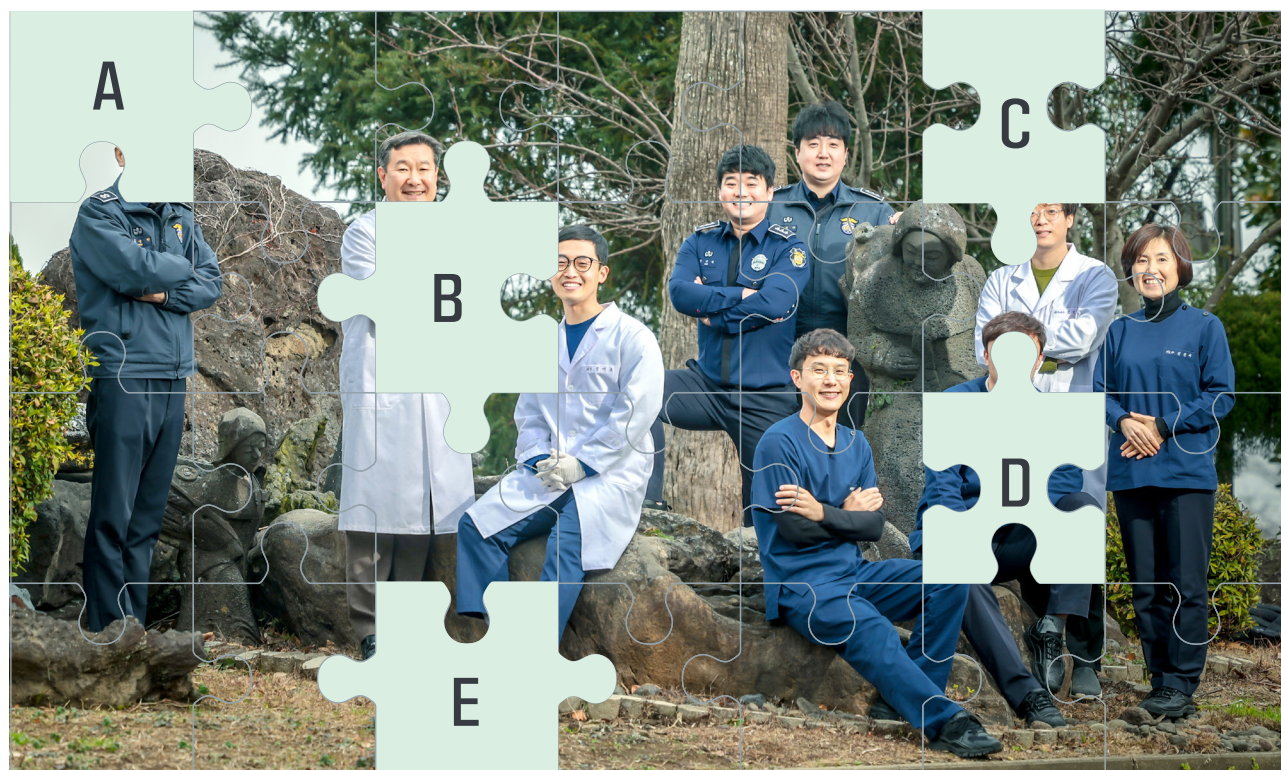


맞는 사진 맞추기

맞는 사진 맞추기

아래의 사진은 '응원의 선물' 코너의 메인 사진입니다. 사진 속 퍼즐과 맞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1, B-2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는 부분 5가지를 맞춰 보세요.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과 함께할 교정공무원을 찾습니다!



 참여 대상 **교정공무원 누구나**

 참여 콘텐츠

전문가에게 묻다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고민을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합니다.



취미의 공유

교정공무원 동호회 소개 및 배우고 싶은 취미를 찾아봅니다.



나도 패션왕

헤어·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참여 방법

신규 콘텐츠에 참여해 주세요!

방법 1

메일(correct2015@naver.com)로 참여를 원하는 신규 콘텐츠와 인적사항 등 발송

방법 2

QR코드 스캔 후 독자 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신규 콘텐츠와 설문조사 진행

QR코드를 스캔해
참여해 주세요.

